인공지능기본법이 콘텐츠에 끼칠 영향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국회는 새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인공지능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법률을 제정했다(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예정).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향후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 중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특별히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이 중에서 콘텐츠 업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 영리활동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들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허위의 선거운동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책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아직까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인 접근만을 취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 또는 발명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산출물·결과물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업계로서는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금지 규범으로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을 콘텐츠 창작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포함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기계에 밀리는 인간, 새 시대에 필요한 발상

기자 수첩
김 현 정
〈IT부〉

최근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사들을 탐독하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정말 잘 썼다"라고 감탄했던 기사 중 상당수가 생성형 AI가 쓴 것이었다. '기자 구독'을 위해 기사 말미로 스크롤을 내리면 어김없이 챗GPT, 클로드 3.5 소네트와 같은 생성형 AI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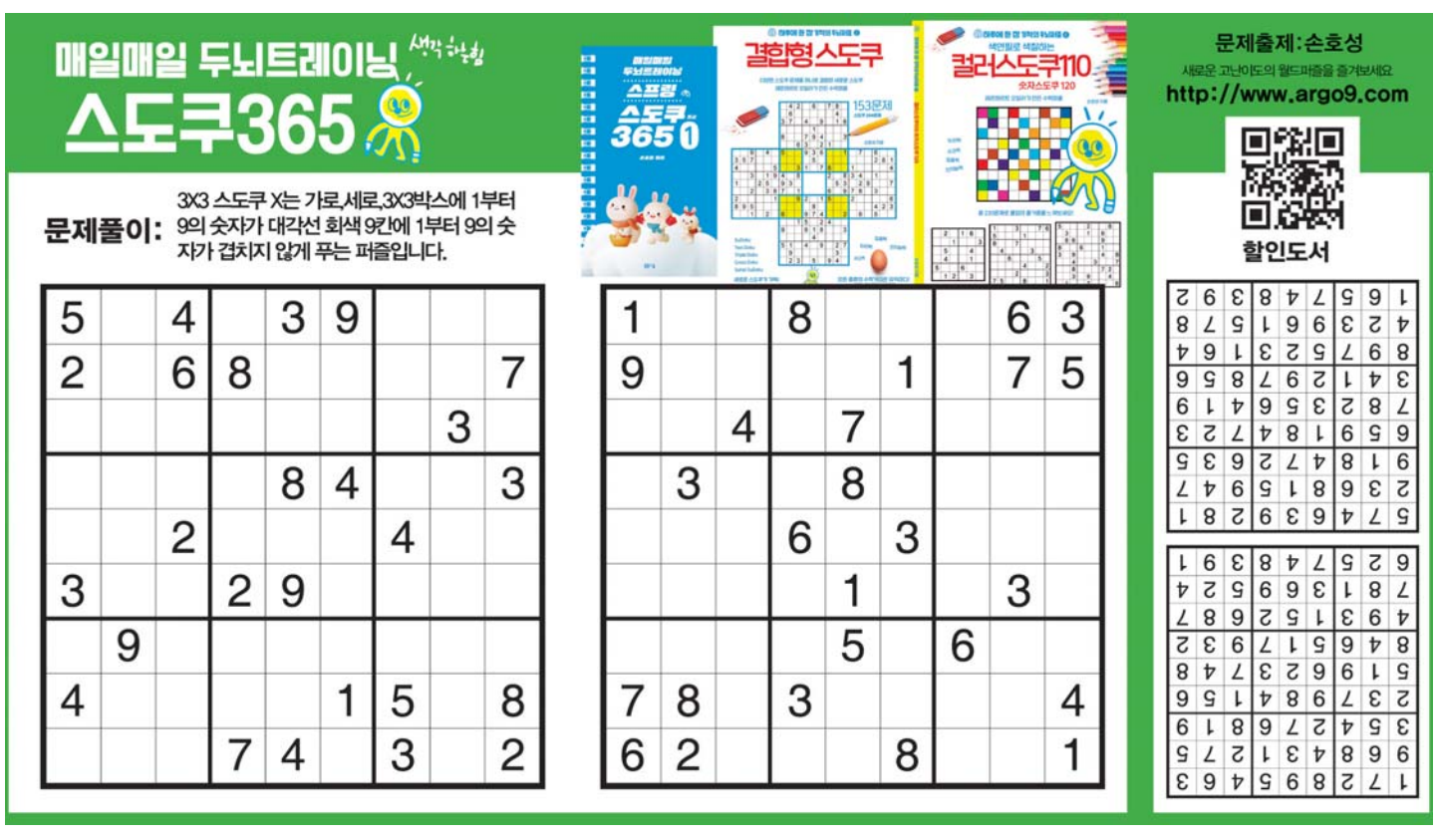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다. 명색이 IT 담당인데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중국의 AI 챗봇 '딥시크'에 접속했다. 입력창(프롬프트)에 "'생태계 확장'과 비슷한 표현 알려줘"란 명령어를 넣고 기다렸다. 큰 기대는 없었다. 과거 생성형 AI가 막 출시됐을 당시 동의어 찾기를 몇번 시도해봤으나 입력한 단어 뒤에 접미사, 조사, 의존명사를 붙인 바보 같은 말들만 내뱉어 창을 닫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태계 확장'과 뜻이 유사한 표현들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생태계적 확장', '생태계의 확장', '생태계 확장의 것'이란 답을 돌려주는 식이었다.

그런데 성능이 낮아 쓸모없던 생성형 AI가 환골탈태했다. 문맥의 뉘앙스를 파악해 '시장 확대', '플랫폼 강화', '연계망 성장', '에코 시스템 다양화' 등 KBS의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도 단시간 내 생각해내기 어려운 유사 표현들을 단 몇 초 만에 쏟아냈다.

문득 서울 노량진에 들어선 '무인 곰탕집'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곳에 온 손님들은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각자 알아서 고기가 담긴 그릇에 국물을 넣어 먹는다고. 일자리 시장에서 인간은 기계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저서 '김상욱의 과학공부'에서 "기계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며 "기계가 할 수 없는 직업을 찾는 식으로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아예 생각을 바꿔 기계에 모든 일을 맡기고 인간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며 "조만간 우리는 기계와 공존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이 그 단초가 되길 바라본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7일 (음 2월 1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한 알의 모래알이 하나의 세계일 수도 있으니.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기쁘다. **60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어기지 마라. **72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는다. **84년생**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

소 **37년생** 어려울 때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49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난감하다.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73년생** 지갑이 두툼해지니 마음도 든든하다. **85년생** 뱀띠 원숭이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호랑이 **38년생** 비전은 이상이지만 꿈이요 현실일 수가 있으니 포기 말자. **50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62년생**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하게. **74년생** 오후에 작은 성과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86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다.

토끼 **39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51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63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75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조용히. **87년생**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용 **40년생** 부동산문서의 매매가 길하다. **52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64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6년생** 삶에는 이용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의 일이 많다. **88년생** 이루지 못한 꿈을 접을 때가 됐는데.

뱀 **41년생** 몸은 고달파도 재물은 들어온다. **53년생** 과욕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65년생** 흔한 성씨 김 씨 중에 귀인을 찾는다. **77년생** 외롭다 해도 사람을 만나서 채우려 하지 않도록. **89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말 **42년생**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 아니겠는가. **5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66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78년생**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90년생** 로또가 되려면 일단 로또복권을 사야 할 것.

양 **43년생** 과민한 반응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55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이익이 있다. **67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자. **79년생** 헤매는 하루하루가 인생이라 했다. **9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원숭이 **44년생**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56년생** 전화위복의 계기가 생긴다. **68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80년생**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다. **92년생**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훌륭한 말은 할 수 있다.

닭 **45년생** 배가 아파도 흰죽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57년생** 누구나 하나쯤은 잘하는 것이 있으니 편견 말자. **6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있다. **81년생** 연인끼리 금전 기대를 접으면 마음이 편하다. **93년생** 늦게 나타나는 성과로 마음이 졸인다.

개 **46년생** 능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다. **58년생** 곁을 떠나는 사람은 잡지 마라. **70년생**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82년생** 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건너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인지. **94년생**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무능함 인정.

돼지 **47년생**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를 다하지 못하다 보니. **59년생**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71년생** 하늘을 올려다보고 마음을 추스르자. **83년생** 천국을 본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닐 수 있다. **95년생** 인(仁)이 없는 발산개세(拔山蓋世)는 허세.

김상회의 四季

상관 사주 남편

실력 있는 전문직인데 사건 사고로 연일 고생이다. 심지어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사는 게 피곤하다. 더구나 같이 사는 아내로서는 이렇게 골치 아플 수가 없다. 지난번 상담을 온 여자분의 상황이 그랬다. 사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다. 남편은 전문직인 세무사다. 삼십 중반의 남편은 실력이 좋아서 일도 많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 사람도 성실하고 바른말을 잘한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좌충우돌이다. 남편은 넘치는 상관이 문제였다. 상관은 사주 십성十星 중에서 흉신으로 작용한다. 글자 그대로 관에 흠집을 낸다.

정해진 규율보다는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니 윗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사주다. 더구나 잘못된 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할 말은 꼭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니 주변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세무 일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남편은 의뢰인과 갈등이 많아서 사건 사고가 잦은 것이다. 남편이 일 처리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길게 보면 결국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상관 사주는 실력이 좋아도 재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남편은 인성이 왕한 상관생재로 재성을 끌어온다. 운세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재물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남는다. 사춘기 아이처럼 잠시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좌충우돌하던 아이가 어느 날 훌쩍 자란 믿음직한 모습이 되듯 남편도 업계에서 우뚝 솟아오른 전문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